

## 동남아 종계수출로 품질 우수성 인증

— 홍보부 —

「본고는 국내 굴지의 원종계 농장으로 국내 원종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삼화농원이 로스 종계를 연속하여 대만에 수출하는 개가를 올림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계획을 점검해 보고자 삼화농원 이상배 부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종계수출은 국내 육계업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는 이상배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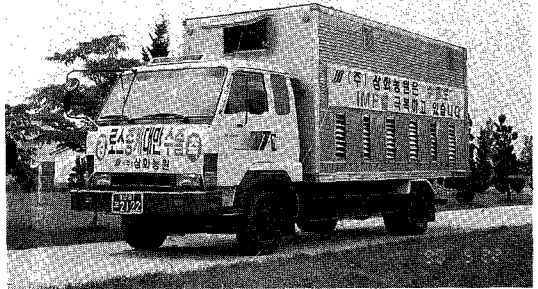
▲ 삼화농원이 로스종계를 타이완에 수출했  
다는데?

△ 이상배 : 현재 우리나라 종계업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소비신장이 되어 왔으나 지난해부터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급기야 국가금융위기로 인해 육계업은 성장을 둔화와 함께 종계, 원종계업까지 도산직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치 못한 실정입니다. 원종계 농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우수한 종계를 공급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가급적 국내 종계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종계를 공급하고 있으나 질병발병율이 높은 우리나라 육계업계

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삼화농원은 수출에 관심을 갖고 지난 3월 27일 17,250수를 수출한데 이어 5월 22일자로 10,925수를 다시 수출함으로써 검역조건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타이완의 시장을 개척하여 원종계 농장으로써 종계생산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가격조건과 지속적인 종계 수출 계획은?

△ 이상배 : 삼화농원의 로스종계를 수입한 타이완의 종계장은 원래 하바드 원종계 농장입니다. 3월에 수출한 종계의 성적이 우수하여 이번에 다시 수출을 하였는데 수출가격은 국내 가격보다 높습니다.

타이완의 현재 종계 분양가격은 약 3달러로 알려져 있어 국내가격보다는 높은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수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수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삼화농원도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디서든 원한다면 종계 수출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되었지만 중국과도 종계 수출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데 결과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몇 개국과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화농원은 가급적 수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 수출 효과와 국내 종계업의 전망은?

△ 이상배 : 삼화농원이 당장 몇만수의 종계

를 수출했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호황을 누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분양가격보다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외화획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화농원은 주문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종계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출은 국내 종계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화농원은 로스에 이어 8월부터 아바에이카도 직접 분양을 하게 되는데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품질입니다.

우수한 종계를 생산하는 것은 원종계 농장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나라 육계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생산관리와 경영관리로 종계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스와 아바에이카의 전담관리 직원을 배치하여 사육부터 병아리 분양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분리하여 생산에 임하고 있는만큼 수출을 통한 국제적 품질인증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